

Interview

〈열린 지성〉 초대석

관악모듬강좌의

김경렬 교수를 만나다



이번 〈열린지성〉 초대석에서는 관악모듬 강좌의 개발부터 참여하였으며, 관악모듬 강좌의 ‘엘니뇨-세계를 바꾼 기후 현상’ 수업을 맡고 계시는 김경렬 교수(지구 환경과학부)를 만나 교양교육에 관한 의견과 관악모듬강좌의 향후 계획을 들어 보았습니다

Q 서울대학교의 교양교육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양교육에 관한 비전은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관악모듬강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요?

A 각 학과별로 제도적인 분리가 심한 현 체제 상에서 교양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문과-이과의 연결입니다. 관악모듬강좌는 한 가지 주제, 사건, 저서 또는 인물에 대해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교과목인데, 강의 매 시간마다 여러 분야의 학자들을 초빙하므로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소속된 지구환경과학부는 9년 전까지 해양·지질·천문·지구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통합된 학부입니다. 지구 전체를 본다는 의미에서 ‘지구 시스템’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세분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학제 간 연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황을 한 가지 각도로만 보아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실 보다 입체적인 ‘지구’ 연구를 위해서는 지리학이나 환경 대학원, 지리교육과의 연결도 필요한데, 현재는 지나치게 산재되어 있어 조직적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노력에 모든 것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악모듬강좌는 교양이지만, 이런 맥락에서 사건을 다면적으로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교양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금년은 지구의 해입니다. 지난 2월 유네스코 주도로 파리에서 세계적인 선포식을 했고, 한국에서는 4월 중순에 이를 선포합니다. 서강대 이덕환 선생님 말씀을 옮기면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수업을 통해 문과생들이 조금이라도 지구를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Q 한 가지 주제, 사건, 저서 또는 인물에 대해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교과목 ‘관악모듬강좌’는 05년도 2학기부터 운영되었다는데, 선생님께서 과목 개발 과정에서 초기부터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와 배경 속에서 ‘관악모듬강좌’가 생겨났는지, 교과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A 관악모듬강좌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사실 기초교육원의 임현진 전 원장이 재직할 때 나왔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쓰나미 직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5년 초 우연히 그 분을 만났는데 그때 처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란 책을 기억하십니까? 그 책은 문과와 이과로 학생들을 나눠 교육하는 방식이 제대로 된 이과생, 문과생도 못 키워내면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단절만 낳아서 실질적인 문제에는 제대로 대처를 못 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는데, 당시 임 원장님도 이걸 읽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문·이과를 아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실제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자연 현상’인 쓰나미가 터졌고, 그때 그분을 만나 이런 얘기를 하던 중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생각할 거리’로 쓰나미를 택해 수업을 준비해보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미 1~2월이었기에 3월에 시작하기는 좀 힘들어서 시간을 두고 개발해 2학기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관악모듬강좌’의 시작이었죠.

3개를 우선 개발했는데, 첫 번째가 ‘인물’로 정약용을 다루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주제’로 생명 복제라는 문제를 택하고 다른 것, 세 번째가 ‘사건’으로 바로 제가 맡았던 수업입니다. 당시에는 쓰나미를 다루려 했는데, 쓰나미가 2~3개월 만에 이슈에서 사라져버려 향후에 엘니뇨로 바꾸었습니다.

Interview

Q 흔히 ‘자연’ 내지는 ‘환경’의 키워드로만 접근하기 쉬운 ‘엘니뇨’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신다는 관악모듬강좌의 ‘엘니뇨-세계를 바꾼 기후 현상’ 수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엘니뇨 강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주제를 쓰나미에서 엘니뇨로 바꾼 것은 내 자신의 관심이 해양학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엘니뇨가 당시 BK21 사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구환경과학부의 BK21 사업 부문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었고, 방학마다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아끼는 후배인 주일우 박사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2000년 초 주일우 박사를 만나러 케임브리지로 가던 중 기차역 서점에서 우연히 쿠퍼-존스톤의 『엘니뇨』란 책을 집어서 읽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엘니뇨를 흔히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엘니뇨』에서 엘니뇨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할애하는 페이지는 단지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는 역사, 인문학,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엘니뇨를 봅니다. 예컨대 1812년 나폴레옹의 패전과 퇴각을 가져왔던 러시아의 강추위가 엘니뇨 탓이었다는 거지요. 최근에는 역사와 기후를 결부시킨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 나에게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연결하는 접근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새물결로 연결해 번역했고, 지금은 내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 2학기부터 엘니뇨를 가지고 관악모듬 강좌를 시작했는데, 두 번이나 폐강되었습니다. 인물 연구는 잘 자리 잡았는데 엘니뇨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서너 명만 신청했었지요. 그 다음 학기에도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생물학과 생명 복제도 원래 아주 인기 있는 강좌였는데 관악모듬강좌로 바뀐 후 폐강되어서 매우 미안하고 섭섭했습니다. 두 번이나 폐강되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드디어 세 번째에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다행인 게 새물결에서의 책 번역이 늦어져 첫 강의 시작 후 한 달쯤 지나서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책이 늦어진 게,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된 거죠.

엘니뇨 관악모듬강좌는 16주 강의 중 5~6주 동안만 지구 시스템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내가 맡고, 1~2주는 대개 조교가 글쓰기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외부 선생님을 모셔 오고 마지막 3주는 발표를 합니다. 학생들이 글쓰기가 약하기 때문에 조교를 통해 글쓰기 훈련을 시키고, 요약문을 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글쓰기 비중을 조금 줄이고 발표를 시도하고 있는데, 80여명을 5명 단위의 1조로 나눠 책 중 한 챕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게끔 합니다. 엘니뇨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책에 있기 때문에 외부 선생님들께는 이 외의 아주 폭넓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글쓰기 실력의 배양과 함께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계를 연결한다는 목표로 시작했는데 그 바람이 통했는지 현재 3학기째 진행 중인 이 강의에는 문과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폐강은 옛말이고 80명 정원에 더해 몇몇 친구들은 초안지를 내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듣게끔 평가 방식을 S/U로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Q 기본적으로 관악모듬강좌는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에서는 어떤 분들을 모시나요?

A 대개 첫 시간에 공지하는데,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가변적입니다. 그때 그때의 이슈와 선생님들 사정에 맞춰 조정하는 거지요. 외부 선생님께는 주제에 대한 부탁 없이 자연스럽게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인문학계에서는 우리학교 서양사학과와 주경철 선생님과 박지향 선생님을 모십니다. 주경철 선생님은 이번에 『대항해시대』를 내셨고, 박지향 선생님은 영국사를 전공하셨는데 아일랜드의 기근 사태와 엘니뇨를 연결지어 설명해주십니다. 경인대 김호 선생님은 역사 기록상의 자연 재해에 대한 대처와 구휼 정책에 대해 강의하시고요. 사범대 지리교육과 류재명 교수님도 매년 오시는 분입니다. 아직 사회대 선생님들은 못 모셨군요.

자연대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생물 변화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시는 연세대 강호정 선생님과 함께 권원태 박사, 주일우 박사가 옵니다. 주일우 박사는 본래 생물을 공부했는데, 박사과정부터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사 결정·정책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와 과학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Q 3학점인데도 S/U라는 평가 방식 상, ‘쉬어가는’ 과목으로 듣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수업 개설 의도에서 어긋나는 경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U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요즘은 다들 너무 성적에 연연하기 때문에 S/U도 괜찮지만 대신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미있게 해야지요.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강의 진행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A부터 F로 성적을 주면 수강하지 않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나 할까. 그래서 관악모듬강좌가 자리를 잡으면 등급별로 성적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건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자연스럽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Q 이번 학기에 ‘진리탐구와 학문 윤리’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레포트 및 논문 표절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학문적 윤리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관악모듬강좌를 개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열린지성>에게 살짝 귀뜸해 주세요.

A 지금도 더 많은 강좌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현진 전 원장 이후 박은정 원장이 기초교육원을 맡으면서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는 학생들 접근이 잘 되면서 보다 많은 과목을 준비 중입니다. <지속 가능발전>, <서울>등의 강좌가 개발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는 한 가지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 외 교양을 적극적으로 듣고 가능하면 좋은 주제를 택해 문, 이과가 만나는 지점을 생각하며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았던 엘니뇨 강의가 두 번 폐강된 후 필수 이수 규정 중 하나로 관악모듬강좌를 넣었으면 하고 제의를 했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기초교양모임에서 이런 보고를 올려 의견이 전달된 상태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이명지 / 사진 : 서유경 / 정리 : 이정은